

지역 소식통

김제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김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2회 개최하는 김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관리에 관해 심의·자문을 하는 기구로 수질전문가, 소비자단체, 시의원, 학교교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수돗물평가위원회는 2023년도 수질검사결과 공표와 2024년도 수질검사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 김제시 상수도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개최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지난 2023년 자체 수질검사를 시행한 수도꼭지 지점 19개소와 급수과정별 모니터링시설 7개소에 대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물 심의·공표했으며, 2024년도 수질검사 지점선정,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등의 심의가 이뤄졌다. 또한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와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 선정에 대한 자문 등 상수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놨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일년 대출 서비스 '호응'

김제시립도서관은 김제시민의 독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시한 '일년 대출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립도서관은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을 재구성하고자 오는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일년 대출 서비스'는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회원은 최대 50권, 가족회원은 최대 200권까지 빌려 갈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4일 현재까지 150명 이상이 일년 대출을 이용해 총 5,000권이 넘는 책이 대출됐다. 시립도서관은 오는 7월 김제시체육관으로 임시 이전하는 복합자료실도 차질 없이 준비해 지역주민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 시켜나갈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도시브랜드·캐릭터 확정

새 비전 담은 브랜드 개발로 도시경쟁력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5일 새로운 도시브랜드(BI)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와 캐릭터 '짜리·콩이'를 김제의 새로운 상징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브랜드 확정은 지난해 4월 용역 착수 이후 시정의 정체성 및 현황 분석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브랜드 네이밍 및 캐릭터 선호도 조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도시브랜드 선정을 위한 최종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구체화된 결과물이다.

도시브랜드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는 김제(GIMJE)의 이니셜 G와 J를 결합해 하트와 새싹 모양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황금색 계열



은 지평선의 황금별관을, 초록색 계열은 생명이 싹트는 대지를, 파란색 계열은 수평선의 새만금을 상징하여 지평선 너머 새만금으로 나아가는 김제시의 미래성장비전을 나타낸다.

캐릭터 '짜리·콩이'는 지평선 황금 들녘에서 생산되는 쌀알과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콩을 현대적 감각으로 의인화한 캐릭터로, '짜리'의 황금색 계열은 누렇게 익어가는 벼의 색

상이며 풍요로움을, '콩이'의 초록색 계열은 푸르고 싱그러운 자연처럼 생동감 넘치는 힘을 상징한다.

시는 지난 19일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업무포장 출원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 기본형·응용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브랜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디자인 어워드 출품, SNS 이벤트 및 포털 검색광고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정 이미지를 드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선8기 2주년을 맞이한 지금,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새로운 브랜드와 함께 김제시가 앞으로 펼쳐갈 여정을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24일 완주군은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유희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완주군, 로컬푸드 미래로 도약 준비

먹거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 돌봄 기능 강화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유희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완주군 먹거리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부분별 전략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먹거리 기획생산 체계 구축 △관계형 시장 확대 △먹거리 돌봄체계 강화 △먹거리 공급 확대 △먹거리 탄소발자국 저감 △공적 추

진체계 확립 등 6대 전략, 66개 세부 사업이 제시됐다.

핵심과제로 먹거리 기획생산구축을 위해 농가조직화 강화와 지속적인 통합교육과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소득 양극화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참여 농가의 종합적인 소득분석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또한, 미래세대 건강먹거리 보장확대를 위해 먹거리통합돌봄사업(허브)을 구축해야 향후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분야 정부 정책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건의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에서 시작된 로컬푸드가 이제 전국의 브랜드가 됐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로컬푸드 사업을 재점검해 2단계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쏠라"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 '사업 속도'

교육청·의회·기업·교육 기관과 맞손 '완주형 인재양성' 다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완주군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유희태 완주군수, 김남희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비롯해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박노준 우석대 총장, 한천수 하이텍고 교장, 조성규 한별고 교

장, 김용현 완주산단진흥회장과 현대자동차(주)전주공장, ㈜KCC 전주공장, 아동·청소년 돌봄기관 등 40여 개 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군은 이들 기관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돌봄/교육 완주어울림버스(가칭)교통체계 마련 △우리아미 365-24 돌봄 서비스 구축 △지역특화 학교마을과정 고도화 및 학교마을 강사 인증제 구축 △디지털 역량강화(교원, 학생)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와 협업체형 특성화고 추진 △완주글로벌 인재 인증체계 구축 △지역특화전원(수소, 반도체, 자동차)연계 지역인재 발굴 및 지역기업 맞춤형 취업 연계 △외국인 및 유학생 정주여건 강화 등 4분야 10개 추진과제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다"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추진해 지역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난 24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제 치매안심센터, 상반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25일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협의체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치매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의 협력

과 지원을 모색하고자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사회협의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 위원 6명과 보건소 치매사업 관련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돼 연 2회 정기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협의체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2024 상반기 치매관리사업 성과, 하반기 추진사업, 치매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치매환자 발굴·연계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폭 늘려

김제시, 총 35개 업체 53개 품목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버섯, 잡곡세트, 오색송편, 해나리물티슈 등 총 7개 업체, 21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21일 실시된 제3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현재 김제시의 답례품은 두차례에 걸쳐 선정된 총 40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품목을 더해 총 35개 업체, 53개 품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가 답례품으로는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중 △참송이버섯, △특이버섯, △새싹인삼, △타래약과, △참살김부각, △개강정세트, △잡곡세트, △꽃송이버섯, △송고버섯, △영지버섯즙, △

버섯세트, △쌀, △떡국떡세트, △오색송편, △구운과자세트, △참살타르트 16개 품목이고, 제조상품은 △압화액자, △압화다이어리, △압화비누홀더, △압화자개책갈피, △해나리물티슈 5개로 총 21개가 선정됐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서류 심사 및 현장평가 등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공급업체와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 시는 기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답례품 추가 선정을 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답례품 발굴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